

장학재단 감사패 수여  
지난 9일 총장실에서



본교는 지난 9일 해마다 각 학과나 단과대별로 장학금을 기부한 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수여식에서 화합승가장학재단과 주식회사 에스원, 캠프 등 5개의 장학재단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장학금을 많이 유지한 공로로 이윤근(경찰행정학)교수도 감사패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각 학과나 단과대별로 장학금이 기부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장학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각원 고승초청법회  
오는 14일 오후 4시

'고승초청법회'가 오는 14일 오후 4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열린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큰스님이 설법하는 이번 법회는 '평생 즐거운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교수·직원, 학생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불상 착색작업 마무리  
오늘(13일) 점안식 거행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은 지난 9일 팔정도 중앙 정원에 있는 석가여래불상의 착색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학기에 발생한 훼손사건으로 불상에 남아있던 휘발유 자국을 없애기 위해 시행한 이번 작업은 지난 6일 고불식을 시행한 후 약 4일동안 진행됐다. 오늘(13일) 오전 10시 불상착색 완공을 기념하는 점안식이 불상 앞에서 거행된다.

영상정보통신대학원장  
송석구 총장 겸임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오복원)은 지난 1일자로 영상정보통신대학원장에 송석구(철학)총장을 임명하고, 사회과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오오카와 야스노리 교수를 위촉했다.

한편, 경주캠은 사회과학대학원장에 전 지역개발대학원장 김영중(행정학)교수가 임명됐다.

## 일만이천 함께 '죽마고우' 총학 건설

### 서울캠 총학후보 김홍민·김덕기조 1차 유세 총여후보, 반성폭력 학칙제정 공약

지난 8일 중앙 도서관 앞에서 열린 1차 합동유세를 시작으로 2001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총학생회 후보 정=김홍민(지교4)·부=김덕기(경영3)조와 총여학생회 후보 정=전이지숙(회계2)·부=양김유미(영문2)조는 첫번째로 학생들 앞에서 공약을 설명하며 죽마동기를 밝혔다.

총학생회 정·부 임후보자인 김홍민·김덕기조는 선거유세에서 "1만 2천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학생회를 건설하겠다"며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여러 접촉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교 학생들이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에 있는 김종태 대학과 학술 교류를 추진 할 것"을 약속에서 학교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김홍민·김덕기조 선거 운동본부는 선거 유세에 앞서 남한의 대학생과 북한의 대학생이 만나는 과정을 간단한 촌극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이날 김홍민·김덕기군은 영화 JSA를 패러디해서 남한의 군복과 북한의 군복을 입고 학생들 앞에 섰다.

유세를 지켜보던 한 학생은 "독특한 복장을 한 총학생회 임후보자의 모습이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며 "정치 운동으로 치우쳐 있는 학생회 활동이 오 늘처럼 학생들에게 좀더 친근히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의 가능성,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마한 전이지숙·양김유미 후보는 "성폭력 문제 등 여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정례화 하겠다"며 "무엇보다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총학·총여 후보의 1차합동 유세가 지난 8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학내 여학생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를 탈피하여 이 사회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총여학생회가 될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2차 유세는 오는 15일 오후 5시 동국관 앞에서 3차 유세는 20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된다.

## 200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일정

### 서울캠 '나' 군 경주캠 '다·라' 군

본교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일정이 나왔다.

구체적인 일정은 (표)와 같다. 이번 특차모집은 예년처럼 전·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한다.

특차 전반기 모집은 외국어 우수자, 특기자, 수학·과학 교과성적 우수자, 학교장 추천 등 교과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위주로 선발하며, 특차 후반기 모집은 일반전형과 농어촌, 취업자, 특수교육대상, 소년소녀가장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전형	내용	일자	
특차 모집	전반기 (특별전형)	원서교부 원서접수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11. 6(월)~11.27(월) 11.23(목)~11.27(월) 11.29(수)~12. 3(일) 12.12(화) / 23(토)
	후반기 (일반전형)	원서교부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12. 6(수)~12.16(토) 12.14(목)~12.16(토) 12.23(토)
정시 모집	'나' 군 (서울)	원서접수 실기고사 논술(면접) 고사 합격자 발표	12.27(수)~12.29(금) 1. 9(화)~1.13(토) 1. 9(화)~1.10(수) 1.19(금)
	'다·라' 군 (경주)	원서접수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2. 1(목)~2. 3(토) 12.27(수)~12.29(금) 1.15(월)~1.20(토) 1.19(금)
	합격자 등록	2. 1(목)~2. 3(토)	

## 의대, 수업거부·유급투쟁 강행

### 11일 약사법 타결 ... 투쟁방향 갈릴 듯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전국 의대생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급을 당하더라도 투쟁을 계속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 같은 의대생들의 입장은, 교육부의 특별 지시가 없는 한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수 없다는 학교측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 의대생들은 유급 한계일인 오는 12월 13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교 경주캠 의약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학교측과 유급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의 중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새벽 정부와 의약계간 약사법 개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 약의분업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오후부터 진행된 6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쟁점이 되고 있는 대체 조제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로 하고 기타 11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대생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 유학 및 어학연수 박람회

### 6개국 자료 제공·개인상담 실시

학업상담실(실장=고진호·교육학)은 오늘(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박람회'를 개최한다.

본관 3층 학사지원실 옆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영국, 호주, 일본, 중국, 캐나다, 미국 등 6개국의 유학안내기관을 초청해 유학 및 어학연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상담도 실시한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첫날인 오늘(13일)은 사이버유학안내기관 허브가 모든 국가를 안내하고 △14일은 영국(주한 영국문화원)과 호주(호주대학연합) △15일은 일본

(일본유학정보센터)과 중국(주한 중국대사관 교육부) △16일은 캐나다(주한 캐나다 교육원)와 미국(한미교육위원회) 순으로 열린다.

학업상담실에는 평소 애용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번 정기적으로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업상담실의 정유진 상담원은 "이번 박람회는 각국의 권위있는 유학안내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2학기 장학금지급

2학기 장학금 지급 결과 본교 재학 인원의 28.80%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내장학금은 87.77%이며 교외장학금은 12.23%이다. 또한 교내장학금의 학년별 지급현황은 △1학년=702명 △2학년=765명 △3학년=859명 △4학년=745명 등으로 총 3천717명이다.

▶관련기사 2면(서울보도)

## 고수동정

▲강태원(물리학)=오늘(13)부터 오는 17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공동 심포지움 참가  
▲한상범(법학)=지난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참석 및 강연  
▲이상현(행정대학원장)·곽대경(경찰행정학)=지난 4일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경찰청장(이부영)으로부터 감사증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수상

## 지면안내

학생회 선거

6~7면



선거가 힘찬인 요즈음 본교 학생회 선거 출마자들을 만나 공약사항을 들어보고, 태대학의 학생회 선거상황도 점검해 본다.

'옥골마을' 르본

4면

21세기 한반도 통일

5면

표절과 대중문화

10면



## 달라이라마여!

윤정광 (불교방송고승열전 작가)

우리 불가(佛家)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세상만물이 다 부처로 보이고, 개의 눈으로 보면 세상만물이 다 개로 보인다."

1992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PA(세계출판협회총회)에 참석했던 필자는 참으로 운 좋게도 IPA특별초청연사로 초빙된 달라이라마를 친견할 수 있었다. 기관단체를 든 인도의 특별경호원들이 삼엄한 경호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레이트 몽크! 나는 한국의 불자입니다" 소리쳤더니, 달라이라마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필자에게 다가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어주었다.

IPA총회에서의 특별강연을 통해 달라이라마는 자비와 지혜와 평화의 말을 뿐, 정치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때 중국의 음서버들은 "달라이라마는 종교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며 항의성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전세계에서 모여든 1200여명의 출판인들은 자비와 평화의 전령사 달라이라마를 세계의 성자로 추앙하며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내 중국의 소란을 물어버렸다. 달라이라마는 물론 티베트평정 정부의 메시지를 전세계 인류에게 전하는 인류의 스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그는 수많은 글과 강연과 법문을 통해서 세계 인류에게 자비와 지혜와 평화를 강조했지만, 무장봉기나 투쟁이나 살육과 방화를 선포한 일이 없고, 티베트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지만 단 한번도 중국인을 테러하도록 사주한 일도 없거나 무기로 무장한 독립군도 조직한 일이 없다.

그런 달라이라마가 끝내 11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무산되었다. 중국의 외교적 압력과 협박에 감대중정부가 굴복한 탓이다. 더더구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된 감대중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이미 수상한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막은 셈이니, 이것은 참으로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감대중대통령과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그리고 그 정부의 관계자들은 과연 무슨 '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예수의 눈인가, 마리아의 눈인가, 개의 눈인가?

발전기금 ARS 7000-119

## 당신의 손에 쥐어진 소중한 권리를 잊지는 않으셨나요?

### 2001년, 동약을 움직일 주역

# 바로 당신입니다!

유세일정

서울캠 중앙(총학생회·총대의원회·총여학생회·졸업준비위원회) 유세  
2차 유세 : 15일 오후 5시 동국관 앞  
3차 유세 : 20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

투표일

서울캠 : 21, 22, 23일  
경주캠 : 추후공고

동대신문사

# “장학금 신청을 아시나요”

## 올해부터 제도변경 ... 모호한 선발기준 혼란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장학제도’를 모르는 것은 결코 약이 아니다.

본교 장학제도는 단순히 성적에 의해서만 지급되었던 기존 장학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학기에 개정되었다. 장학제도가 변경되면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발기준은 △성적 △가정형편 △봉사활동 △학업지도교수 평가 등 다양하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단과대 수석과 학과·학부 수석은 단대수석장학(등록금 전액)과 성적우수장학(등록금 72%)을 받게 됐다. 또한 학과·학부 재직인원의 12%에게 지급되는 우수장학(등록금 30%)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성적 60% △가정형편 20% △사회봉사 10% △학업지도교수 평가 10%를 반영해 평가한다.

그러나 200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결과, 문과대와 공과대 1학년 장학금 신청이 미달됐다.

이는 대부분의 저학년들이 장학 정보를 주위의 친구나 선배를 통해 듣기 때문에 장학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가, 변경된 장학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장학금 신청제도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학업지도교수 평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자대 우진하(산림자원4)군은 “장학제도가 신청제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분야별 평가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학업지도교수평가 항목은 문과대 등 몇몇 단과대에만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을뿐이다. 게다가 200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할

학업성적(60점)
평균 4.5점을 만점으로 0.1점마다 2점씩 감소(4.5=60, 4.4=58 ... 3.0=30)
가정형편(20점)
재산세 미납자(20점)를 기준으로 5만원 증가때마다 2점씩 감소
사회봉사활동(10점)
33시간 이상 10점 / 25시간 이상 8점 / 20시간 이상 6점 / 20시간 이하 4점
학업지도교수평가(10점)
학과 참여가 매우 많다 10점 / 많다 8점 / 보통 6점 / 적다 4점

〈표〉 장학금 선발 기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학업지도교수 평가 기준을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교수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투표합시다” ... 각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지난 7일부터 3일간 실시됐다. 투표소를 지나가던 한 여학생이 친구와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중앙기구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 회전무대

### 국민흡연현장

“...쌔쌔해진 날씨에 애연가들은 저마다 겨울을 대비해 자신들만의 공간을 찾고 있다는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복도나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이는 간접흡연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건물내 흡연금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니.

이에 담배를 피우던 한 학생 왈, “우리는 흡연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동약에 태어났다”

### 골라골라

“...“동약 화장실, 골라 쓰는 괴로움이 있다”

학술문화관 2층 화장실은 늘 비어 있는데다 그나마 화장실에 들른 학생들이 사용은 않고 이리저리 문만 열어보고 만다는데.

알아보니 4칸의 화장실 중 문고리가 제대로 달려있는 것은 단 한 개뿐이라고.

학생들은 점차 화장실 이용을 포기하고, 학교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을 방치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약 화장실의 4지 선다형화”

### 동약 길라잡이

“...요즘 동약은 외부인들의 미로 찾기로 어지럽다는데.

이유인즉, 학교 이곳 저곳에 신축 건물이 많은 반면 층문에 있는 안내도는 변함없다고.

임시철이 다가오고 본교 입학 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방문도 잦아질텐데 이는 본교의 이미지를 미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지.

이에 한 학생 왈, “이번에는 동약 길 찾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하지 않을까요?”

### 탁상공론(?)론

“...요즘 소위 개혁적으로 평가받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이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만 활발히 참여하고 정작 법안 상정을 위한 서명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이에 보수적인 다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토론하다 죽어도 좋다! 단지, 토론만”

## 교내 겨울난방 실시 내년 4월까지 운영

사무처(처장=황영수)는 교내 건물 난방을 내년 4월 20일까지 실시한다.

각 건물별 난방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학생회관=오후 4시 △본관=저녁 6시 30분 △학림관=저녁 7시 △인홍관·과학관=저녁 9시까지이며, 그 밖의 건물은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난방을 실시한다.

한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중앙도서관은 일주일 내내 오전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 참사람, 봉사대축제 노인의료봉사활동

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지난 11일 중구청이 주관하는 ‘자원봉사대축제’에 참가했다.

중구지역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성사회봉사단과 함께 참여한 이번 축제는 무료의료와 한방 침요법 등 의료봉사활동을 벌였으며, 무의탁 노인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참사람봉사단 최정숙 담당자는 “앞으로는 고등학생들과 연대하여 약물 중독예방 캠페인도 적극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3개 단과대 학생회 건설

### 후보 미등록 단위 내년 3월 선거

2001학년도 각 단과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9일 마무리 됐다. 지난 7일부터 3일간 실시된 투표결과를 다음과 같다.

**문과대** 이재광(철3)·신윤숙(사3)조가 51.7%의 득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3.4%, 반대 6.1%로 문과대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생자대** 이난희(생자부2) 후보가 65%의 득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9.1%, 반대 9.3%로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사범대** 주진대(국교3)·박덕수(영교3)조가 60.7%의 득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2.1%, 반대 4.3%로 사범대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 연장 기간동안 경영대 학생회장 선거에 김성호(경제통상2)군이 입후보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출마자가 없는 불교대와 이과대, 공과대, 법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학생회 선거는 내년 3월에 시행된다.

## 생협 학생대의원대회 진행

### 이사장 불신임·사무국장 해임 결의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 학생 대의원 대회’가 지난 10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유명관(산공4) 학생복지위원장과 김태광(국교4)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생협학생대의원 대회는 △학생 대의원 활동과 감사보고 △생협 이사회보고 △예산보고를 비롯해 생협 독립법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지난 학기 새터 사고로 학생 대의

원 활동이 미진했던 것에 비해 후반기에는 △학내·외 인권운동 토대 구축 △매장관리위원회 활동 △한가위 귀향 사업 △소강당 영화회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8차례에 걸쳐 열린 생협 독립법인 추진위원회의는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독립법인화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생협이 시설구비나 비품 구입 등의 이유로 1만 2천 조립원

의 잉여금을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생협 학생 대의원들은 재적 29명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생협 이사장 불신임과 생협 사무국장 해임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16일에 있을 이사회 회의에 제안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생협 학생 대의원의 추경예산안 인준문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장관리위원회 김지선(경영대1) 위원장은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출방법으로 대자보를 이용한 회담자 위주의 대의원 선출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는 제안을 했다. 이밖에도 소모임 구성과 각 학생회에 복지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흡연은 흡연실에서만” 동국관 흡연실 설치

시설관리팀(팀장=이천종)은 지난 9일 동국관 M동 5층 도서관 입구에 흡연실을 설치했다.

이런 공사는 건물내 흡연 금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입구에서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흡연실을 설치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학생복지위원회와 시설관리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 국가고시 모의고사 접수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계산고시학과(사감=이윤근·경찰행정학)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국가고시대비 1차 모의고사’ 원서를 접수받는다.

오는 26일 정보문화관 403호에서 실시되는 모의고사는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험성적의 일정비율이 고시장학생 선발에 반영되므로 고시장학생 선발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모의고사 시험과목은 외국어, 헌법 등 사법고시 1차 시험과목과 동일하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 대상자 :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자격
  -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 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그 명단이 제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포 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료,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B)이상인 자
- 접수기간
 

2000. 11. 9(목) ~ 11. 15(수)
-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 교학과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람.

## 사범대학

## 벤처창업에 나도 도전?

벤처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가 준비되었습니다. 창업관련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지신 전문가들을 특별히 강사로 모셨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행사명

대학생 창업강좌

### 일시

2000. 11. 15(수) 오후2시

### 장소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강좌내용

- 정부의 벤처지원제도(서울중기청 비영언 지원총괄과장)
- 창업과 기업가정신(동국대 박준업 교수)
- 벤처창업과 자금조달전략(다산벤처(주) 이승훈 부장)
- SOHO창업 성공전략(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최용혜 상담사)
- 벤처기업법무와 세무의 이해(Law Media Group대표 배재광 변호사)

## 서울중소기업청·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 2001-1학기 장학금 신청안내

2001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장학명(장학금액) : 우수장학(등록금 30%)
  - 단과대학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
  - 2000-2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 신청기간 : 2000. 11. 15(수) ~ 28(화)
-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학업성적 : 60점
  - 나. 사회봉사 : 10점
  - 다. 가정형편 : 20점
  -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1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대학교육에 문의바람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 사회봉사인증서
    -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 대학교육부에 제출함.
    -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 재산세(비)과세증명서 등 가정형편을 증명하는 서류
  - 라.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 학생처

### 특강

## 변화를 이끄는 진취적 여성파워

관련의견을 받습니다

여학생실에서는 젊은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미래지향적 삶의 비전을 제시해주고자 여성정책 총괄부서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백경남위원장을 모시고 변화를 이끄는 진취적 여성파워 라는 제목아래 특강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00년 12월 1일 (금) 오전 11:00  
장소 : 문화관 제3 세미나실

이에 앞서, 여성과 관련된 진지하고 다양한 질문을 수렴하여 젊은 여성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여성과 관련된 질문 및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문및 의견의 내용과 형식 : 자유

나. 접 수 : 11월 24일(금요일) 까지

다. 보내실 곳 : mijyoung@dongguk.edu  
팩스 02-2260-3058

라. 문 의 : 여학생실(2260-3056)

## 여학생실

달라이 라마 방한 무산과 대 중국 외교

불간섭 원칙 무시한 '한국 길들이기'

달라이 라마 방한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예정됐던 11월 18일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함으로써, 세계적 정신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그를 만나고 싶어했던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불허의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난 9월 중국대사는 "그의 방한이 허용되면 단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압포를 놓았다. 중국의 속국이나 자치주가 아닌 이상 어떻게 중국이 한국을 향해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압박지를 수 있는가.

중국외교의 폭력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티베트 망명정부에 눈에 가시같은 존재일 것이고, 따라서 달라이 라마는 종교지도자가 아닌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반기를 들고 있는 분리주의자이며 반체제 인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방한을 허용하는 것을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내부 문제이며 중국정부의 자대일 뿐이다. 한국 국민들은 티베트의 정치문제에 관해 특정한 입장을 가진 것도 아니며 달라이 라마 방한 목적도 순수한 종교문화적인 교류에 국한하고 있음을 충분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기네 잣대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패권주의적인 사고의 산물이며 외교적 폭력이다. 달라이 라마를 평가할 자유와 초청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중국이 강요해서도 강요할 일도 아니다. 한국민의 80% 이상이 원하는 것은 달라이 라마 초청을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엄연한 주권국가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협박은 그들이 늘상 말해오던 '불간섭원칙'과 무관하던 말인가.

방한 허용과 불허를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을 헛갈리게 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미덥지 못하다는 마찬가지이다. 인권대통령과 노벨상 수상국가로서의 위상은 이번 달라이 라마 방한불가 결정으로 심하게 훼손되었다. 동티모르 주민들의 인권보호라는 명분 하나로 낯선 땅에 파병했고, 탄압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의 인권과 미얀마의 민주화 문제까지 언급했으면서도, 노벨상 심사

가 끝나자마자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선배수상자인 달라이 라마의 민간단체 초청을 거부한 두 얼굴의 김대통령. 지금까지의 인권노력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은가.

침해당한 국민의 문화권리

달라이 라마의 방한과 관련해 정치 경제적 국가이익도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 세계의 50여개국을 방문했고 이들 국가 대부분이 중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부 또는 의회의 공식초청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 정치 경제적 상황이 결코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스리랑카, 대만, 태국, 불가리아 등을 포함 그 어느 나라도 중국과 수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최소한 무역보복을 받아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미리 알아서 엎드리는 셈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역규모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주권침해에 이를 정도라면 앞으로 더욱더 예측적 관계로까지 전개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이쯤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박 광 세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를 배경으로 달라이 라마 방한을 허용함으로써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호혜평등한 관계로 바로잡는 일은 결코 불가능했을까.

또 그런 일을 슬기롭게 처리하라고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뽑아도 주고 세금도 내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더구나 종교와 양심에 관련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평화와 화해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정부가 명분없이 막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된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요, 국가적으로는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잃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 불허로 오히려 스스로의 주권과 문화의식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민적 합의하에 원칙에 충실하면서 당당하고 크게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

학생회 선거와 정치범(?) 양산

매년 이맘때쯤 대학은 학생회 선거로 분주하다. 잘 처리입은 양복에 하얀 셔츠를 어깨에 두른 선거 입후보자들은 등교시간에는 정문과 후문에서, 수업이 물러있는 시간에는 강의실을 돌며,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학생식당 앞에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실상 학생회 선거를 잘 들여다보면 학생회장이라는 감투에서 풍기는 화려함과 희망찬 각오에서 느껴지는 활기참 대신 '정치수배'를 감수하고 출마한 일부 학생운동 진영 출마자들의 고뇌에 시선이 모아진다.

본교는 민족해방계열(NL) 학생운동 진영이 여러 해째 총학생회를 이끌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 연합 조직으로, 96년 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받은 후 '민족 자주'의 정치노선을 내세우고 출마하는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자들은 당선과 함께 수배 생활의 길에 오르게 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선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사상범을 양산하는 꼴이다. 대물림 되는 이적규정으로 매년 선거가 끝나면 전국에는 수백명의 수배자가 새롭게 양산되고 이들은 정치수배와 옥고를 치르고 있다. 사상범은 개발독재시대 또는 후진국에서만 존재하는 범죄이다.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는 사상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권 대통령의 나라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그리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 어떠한 인권이 온전할 수 있을까?

신입생 홍보 재학생도 나서자

대입 수험능력시험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홍보활동으로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도 예년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신입생들에게 접근하려 한다.

경주 캠퍼스는 매년 인근지역의 고교진학준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왔고, 각 고교에 홍보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특강을 실시해왔다. 또 신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홍보와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전략들이 바로 지방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본교의 노력이다. 신입생 모집기간이 되면 불철주야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홍보담당자들이다. 수능이후 입학 원서를 접수 받을때면 입학 전형일이 '라' 군에 속해 있어 하루에도 수백명씩 뒤바뀌는 신입생들 때문에 혼란을 겪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홍보를 위해서 재학생들이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재학생아르바이트생 모집 계획을 학생선발실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었다. 실질적으로 이에 동참하는 재학생 수가 미미했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재학생이 나서서 보다 다양한 아이টে를 발굴해내고 직접 모교를 방문해 은 사남을 찾아보고 후배들에게 본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재학생들 또한 색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본교에 대한 애정을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쌓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입시 전략의 성패는 건물 증축이나 신입생 홍보기념품을 많이 제작하는 것 이상으로 바로 대학구성원간의 상호협력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수능이후 본교는 엑스포장에서 '대입수험생을 위한 입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곧 있을 이번 행사에 다같이 신입생 홍보위원이 되어보는 것이 어떨까?

연예인 대학입학 진단

특례냐 특혜냐 논란 확산

"이번엔 어떤 연예인이 합격했나" 대입시즌이 되면 각종 마스크는 연예인들의 대학 입학 소식에 관심을 갖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연극영화과 등 연예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연예인 선발을 통해 학교 홍보 효과를 노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본교 역시 매년 정상급 연예인을 선발하게 되면서 타대와 마찬가지로 학교 홍보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교 예술대 이은석(연극영상4) 학생회장은 "우리학교 연극영상학부에 방송 커리큘럼이 전혀 없는데도, 가수가 입학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입시에서 정도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다.

전국 각 대학들은 99학년도부터 연예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대와 배재대를 비롯해 올해는 한양대가 '연기재능특기자 수시모집' 전형을 신설, 탤런트 최미향(예명:최지우), 양미라 등 모두 4명을 선발했다.

대학의 '연예인 모시기' 경쟁은 일반 수험생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SBS에서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연예인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본교 학생선발실의 운동구 과장은 "많은 대학들이 홍보를 위해 인기 연예인을 입학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비관련학과 진학에 대해서는 더욱 말이 많다. 지난해 고려대 서양어문학부에 입학한 그룹 S.E.S.의 김유진(예명:유진)양은 특기와 관련 없는 일반 학과에 입학해 일반학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한양대 입학과의 박창진씨는 "연예인이 비관련학과에 진학한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특기자라고 해서 관련학과에만 진학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대 입학처의 합규태 과장은 "지난해 고려대에 지원한 바둑 특기자가 정외과에 입학한 사례처럼 특기자의 비관련학과 진학은 여러 가지 재능을 살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예인들의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도 있다. 대학생 연예인의 대부분은 잦은 결석과 학점 미달 등 불성실하게 생활하기 때문이다. 본교 연예인의 경우 전체 약 20여명 가운데 6명이 휴학중이



다. 지난해 7명의 연예인이 입학한 경기대의 경우 탤런트 허영란양은 불성실한 학교 생활로 휴학중이며, 나머지 6명도 지난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연예인들이 '이해해 주겠지'라며 특혜를 바라는 생각 때문이다. 경기대 입학관리팀의 김영철 과장은 "방송활동을 한다고 연예인이 학과 공부에 불성실하다면 그것은 학생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학 홍보를 위한 연예인 유치경쟁이 연예인 입학에 '특례'가 아닌 '특혜'로 만들

고 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연예인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휴학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연예인 대학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데 한 몫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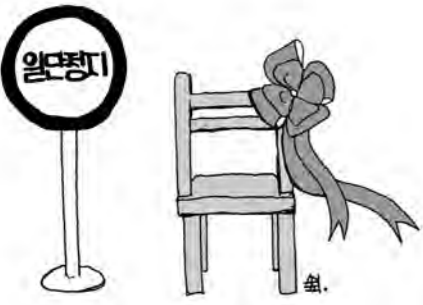
입시철이 다가온다. 올 입시에서는 일반적 학과 홍보를 위해 '인기'를 쫓는 맹목적인 연예인 유치경쟁을 벌이기 보다 체육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와 같이 훌륭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 교육시키기 위한 대입을 기대해본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주관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천리안 ID dgupress / 3101#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1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동약로

한줄서기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맡는 사람이 입자지... 뭐”
동국대 BSC 컴퓨터 실습실. 레포트를 쓰기 위해 빈 컴퓨터를 찾지만 여간해서 자리가 나지 않는다.

최근 컴퓨터 실습실을 이용해 본 학생이라면 한번쯤 경험하는 일이다. 많은 학생들이 점심시간 이후부터 컴퓨터 실습실을 찾지만 먼저 온 이를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어디 서 있어야 자리를 먼저 맡을 수 있을까?”
빈 컴퓨터를 기다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작전’이 뜨겁게 펼쳐진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극장 매표소 등 이제 한줄서기 문화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화되었다. 일찍 도착한 순서대로 시설물을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지난 해 8월부터 한줄서기 캠페인을 벌여 왔다고 한다. 컴퓨터 실습실과 공중전화 부스 앞에 한줄서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학생들이 한 줄로 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행초기에는 표지판이 없으면 학생들이 눈치껏 서서 여러 줄을 만들었으나 일년이 지난 지금 한줄서기는 정착했다.

본교도 BSC 컴퓨터실습실 외에도 다른 컴퓨터 실습실과, 도서관 등 한줄서기가 필요한 곳이 많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한줄서기를 시행하는 곳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한줄서기 문화의 부재에는 한줄서기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현중 기자
dizzy20@dongguk.edu

미군 유류저장시설로 파괴된 ‘옥골마을’

우물을 파도 기름이 나오는 땅

옛날의 푸르름은 간데 없고...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옥골마을. 기름 한방울 만나온다는 나라에서 기름이 뿜어나오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 문학산 기슭을 따라 찾아가면 옥골마을은 땅속에 찌들어 있는 폐유로 피폐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옥골마을은 기름진 땅과 짙은 녹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던 마을이었지만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이 생긴 후 오염된 땅과 다 말라버린 나무가 마을을 채우고 있었다.

“지금은 기름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놓았던 땅을 매립해 놓은 상태지만 둘러보면 여기저기 기름이 고여 있는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옥골마을의 이학열(53) 통장은 논고랑과 길거리에 걸개 고여있는 기름을 가리키며 기름으로 오염된 마을상황을 설명했다.

기름과 함께 지내온 반평생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이 들어서기전 옥골마을은 어느 농촌과 다름없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근처 문학산 등지에서 산나물과 약초 등을 캐서 팔기도 했고, 한때는 비옥한 땅과 짙은 녹음으로 인천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이 들어서 이후 어떠한 생활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주한미군이 떠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곳은 기름에 의해 지하수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말 녹색연합이 저유시설을 조사하던 중 문학산 서쪽 일대 43만평 정도의 토양이 기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해 30년동안 배일에 가려졌던 옥골마을의 이야기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기름에 땅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오염되었는지 몰랐는데, 내가 살고있는 곳이 오염되었다는 말인데... 반평생을 기름과 함께 지내온 셈이지.”

옥골마을 기름유출 투쟁위원회 이중봉(74) 위원장은 유류저장시설 관리가 미흡해 계속해서 기름이 새나와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고 얘기한다.

땅속에서 배어나온 기름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자랄 수 있는 채소나 과일농사는 포기한지 오래고 지하수는 기름으로 오염된 탓에 마시지 못한다. 미군에 의해 환경만이 훼손된 것이 아니다. 미군들은 유류저장시설을 위해 당시 지역주민들에게서 그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60년대 초에는 한 미군이 버린 탱배꽂조로 큰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농작물과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지.”

미군 유출과 정부 무관심으로 방치된 ‘죽음의 땅’

지난 97년 인천시가 민방위 교육장 조성을 목적으로 이 지역을 정비하던 중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복구하려는 노력은 커녕 오염정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그대로 냈었다. 토양복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은폐해 버린 것이다.

“이곳의 오염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복토한 거지. 결국 인천시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옥골마을 주민들은 미군의 기름유출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그들의 땅을, 생활터전을 잃었던 것이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23일 옥골마을의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미군당국과 한국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군이 자신들이 일으킨 환경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유류저장시설 이전시 관련시설의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는 공식문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70년 유류저장시설을 한국정부에 반환할 당시 한국정부와 공동으로 이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관련 유류시설의 탱크는 완전히 비웠다”고 밝히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야. 비옥했던 땅과 지하수가 왜 기름으로 오염됐어. 오리발을 내밀다가 한국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셈이지.”

옥골 기름유출 투쟁위원회 이중봉 위원장은 옥골마을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미군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난 듯 했다.



사진/김윤미 기자

옥골마을 이학열 통장이 논고랑에 고여있는 검은 기름을 저어 보여주고 오염지역을 가리키며 마을상황을 설명했다.

옥골마을 복구를 위한 노력, 보상 꼭 받아낼 터

옥골마을 기름유출과 관련해 녹색연합의 김타규 정책실장은 “인천지역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꾸려 사건을 알리는데 힘쓸 예정”이라며 “한국정부와 미군측이 복구하도록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옥골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조사해 홍보활동을 계획중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수십년간 이런 고통을 당해왔지만 이제와서야 외부에 알려졌어. 그동안 우리도 너무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어?”

옥골마을의 이중봉위원장은 토지피해 보상 및 정부로부터의 사과를 꼭 받아내야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박현호 기자
blue@mail.dongguk.ac.kr

조선일보 바로알기 시민강좌
강준만 교수 “조선일보와 지식인의 정체성”

상호비판 금기일 뿐인가

폐쇄적 지식인 사회 내부비판 활성화 돼야

‘성역과 금기를 향한 거침없는 글쓰기, 그리고 朝鮮日報 강연’

지난 3일 본교 학림관 소강당에서는 ‘조선일보 바로알기 시민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여기에서 강준만 교수는 자신이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열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이와 더불어 안티조선운동이 지식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제기한 5가지 화두를 설명했다.

첫째는 지식인의 소시민화 또는 정치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이다.

강교수는 현재 지식인들이 점점 소시민화 또는 정치인화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식인들의 모습은 매사에 원만하게 대처해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들의 행태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티조선운동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후의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지식인 집단 안으로부터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둘째는 지식인들이 권력변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여론정치 시대이며, 여론의 생산자는 신문이다. 하지만 강교수는 지식인이 아직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과거 정치 위주의 권력구조로부터 언론으로 권력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식인의 비판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언론을 가진 중립적인 매체로 간주하는 언론관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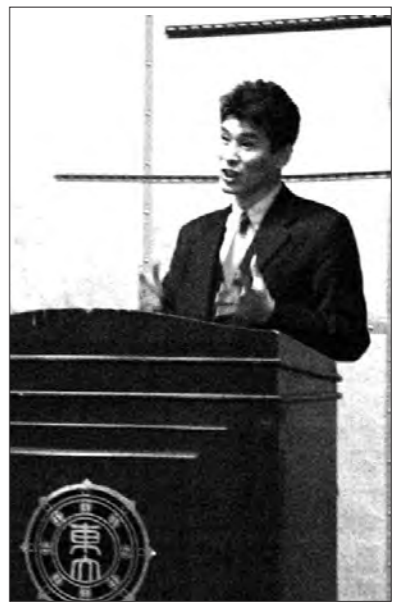
신문은 전화처럼 가치 중립적인 매체가 아니다. 강교수는 만약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매체라면 가치 중립적인 매체개념이 성립될 수도 있지만 조선일보가 그런 신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선일보와 관련하여 비판받은 많은 사람들이 펼친 주된 반론도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언론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도구적 언론관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사회의 모든 의제설정에 관한 권한을 언론에게 맡겨둔 채 지식인들은 이미 설정된 주제만을 놓고 고민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강교수는 이제껏 지식인들은 신문 지면에 소신껏 글을 써왔지만 의제를 설정하는 권한은 신문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식인 집단은 언론과 떨어져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지식인들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려면 출판영역의 독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출판사들은 거대 일간지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국 지식인들은 지식인 상호 비판을 금기시해 온 백년 묵은 전통과 결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강교수는 지식인들 사이의 동업자 의식이 매우 끈끈하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지식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동업자 의식이 투철한 언론들도 요즘에 들어서는 서로 비판의 일침을 놓기도 하는데 지식인 집단에서 내부 비판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물론, 자신의 행태를 배제할 특정 이론에 관한 논쟁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에만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교 학림관 소강당에서 강준만 교수가 강연하는 모습.

정리=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세미나 - 21세기 세계질서와 한반도 통일

# 한반도 통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환경 조성 과 북의 체제변화 필요해

분단 후 그 동안의 통일 논의는 한반도 분단 구조의 모순을 숨긴 채 통일 국가체제의 형태와 통일 과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남북정권은 각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통일논의를 관 주도로 벌여왔기 때문이다.

6·15남북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학계에서는 분단구조의 모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서 통일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은 지난 3일 '21세기 세계질서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분과에서는 세계 흐름의 변화와 남북한 체제 변화 전망이 2분과에서는 구체적 통일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 통일위한 남·북·주변국 변화전망

90년대 초반 탈냉전이 본격화 되었고 2000년에는 통일의 물꼬를 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흐름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 통일을 부합하는 체제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1분과에서 '21세기 세계질서와 남한체제의 변화전망'을 발제한 유광진(정치외교학) 교수는 "한반도 체제가 남한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등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주변국 변화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일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유교수는 남한은 6·15남북공동선언 후 국민다수가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이제는 반세기 동안 고착됐던 분단체제를 청산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서서히 경제를 개방하면서 북한 주민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정일 장기 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부 세력과 보수 담론자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면 강력한 위로부터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남북관계는 급류를 타고 한반도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이 지향해야 할 통일 전략과 함께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 최대석(북한학) 교수는 "한반도 주변 4대국의 동향과 중장기적 동북아 역구조 조변화 등을 고려해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통일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변 4국의 경쟁은 자칫하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초래하여 정상회담의 성과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주변 4국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분과에서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남한의 국가보안법 그리고 북한의 대남관련조항을 통일이 될 때까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장병봉(국민대 법학) 교수가 발제했다.



지난 3일 덕암세미나실에서 '21세기 세계질서와 한반도통일'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장교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 법제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의 법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북 모두 평화통일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 구체적 통일방안보다 근본적 통일의지가 우선돼야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법제정비에 대한 논의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통일 방안이 구체적으로 토론되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시되기도 했다.

류길재(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는 없다"며 "6·15남북공동선언문

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몰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류교수는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도 북한의 체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통일의지가 상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의 전체적 평화 흐름에는 동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환경 조성 시기이며 북의 체제 변화만 있다면 통일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구승희교수의 환향이야기

(4) 에너지원의 고갈

후기 기술문명의 무한정한 향유와 안락을 추구하며 사는 현대인에게도 불안과 공포는 있다. 지금 그 본질이 바뀌고 있다. 전후(戰後) 실존주의가 유행하던 시절 인간은 존재불안, 존재공포에 시달렸다면, 지금 생태계 위기 시대에는 절박한 생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누가 이런 공포로 몰아 넣었을까?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부자나라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우리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에너지원의 고갈 때문이다. 부자나라들의 무책임한 자원의 낭비로 제3세계의 인간과 환경이 생존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60억 세계인구의 10%인 6억 명이 누리는 풍요는 지구 전체의 부의 70%를 차지한다. 인류의 2/3인 40억 명은 전체 부의 10%만으로 살아야 하는 공포인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지구 전체인구의 7%인 4억 2천만 명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총 에너지의 80%를 소비한다. 이런 불균형은 산업화 이전에는 전혀 없었으며,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은 부유한 사회와 가난한 사회의 간격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그것은 부자나라의 사악한 때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에너지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유기체의 물리적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공기, 물, 식량 등 기본적인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은 사회발전의 특정한 시기에만 자원일 뿐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웨일즈나 북독일의 루우르 탄전지대는 두 나라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유용한 자원이 아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자원이 아닌 것을 자원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중요한 자원이었다던 것을 자원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오늘날 골칫거리인 쓰레기는 내일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원의 고갈에 대한 이런 저런 걱정은 사회와 기술적 척도가 "지금 수준으로 정제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하는 단순 투사(simple projection)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가실 따지고 보면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탈하여 타인, 다음 세대, 다른 세계에 전가해서 얻는 '대체효과'에 불과하다.

좀 더 보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백인들의 유색 인종에 대한, 유럽 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비용전가(轉嫁)이고, 넓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약탈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을 최상의 원칙으로 삼는 에너지과학자는 근본적으로 산업문명의 허무주의적 본질을 대변하고 있다.

효율성의 원칙은 에너지원 고갈의 진정한 의미를 은폐하고 있다. 에너지의 재화로써의 변환은 삶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커녕 제도와 권위의 지배를 강화할 뿐이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면 할수록 인간은 기술적 질서에 더욱 구속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말이다.

생명보전이 살아 있는 지금의 공립을 해결해 주지 못하듯이, 미래의 보다 많은 것을 위한 절약은 절약이 아니다. 경쟁과 낭비를 '유보'하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인간적인 사회란 풍요로운 에너지 시대에 대한 희망을 주는 사회, 다시 말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을 '급진적이고도 정의롭게 배분'하는 사회이다.

왜냐하면 간디(Gandhi)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는 만인의 욕망을 채워 주기에는 모자라지만,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언제나 충분하기 때문이다.

### 연구현장을 찾아서 - 이의수 교수의 가상실험시스템 개발

## 제약없는 실험실습을 꿈꾸며

### 가상 속 실험실습... 기초과학 새장 열어

지난해 서울대에서는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이 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화학실험은 항상 폭발위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넓은 공간 이용과 실험장치비용 부담, 실험시간 초과 등 실험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비행훈련이나 군사훈련이 가상공간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에 의해 행해지는 화학실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화학실험 진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수(화학공학) 교수는 '화학단위공정 실험실습시스템 개발'을 연구 중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화학

공업과 식품공업에서 중요시되는 증류탑, 추출탑, 건조공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상공정실험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실험에 대한 교육과 설명이 이루어진 후,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장치와 작동 기본원리·화학적 관련식을 설명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실험자가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단위공정 모사기를 작동해 실험 결과를 체크, 문제점을 찾아내어 실험을 수정·보완하는 단계에서 가상실험 시스템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토대로 세부적인 동적 공정모사들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이것은 가상실험을 보다 생동감 넘치고 사



이의수 교수와 연구원들.

실적으로 진행하며, 실험자와 시스템간 상호교류를 가능케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실험자가 실험도구를 실제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실험장치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입체적인 그래픽과 음향을 이용

하는 것이다. 또 실제 실험진행에 따른 시간대별 데이터 변화가 화면상으로 나타나 마치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게다가 과거 실험실에서 실시하던 평면적인 자료 분석에서 벗어나 한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 유형에 맞는 해결책을 소개해 보다 다양한 실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상공정 실험 시스템은 개발되는 대로 본교 가상대학 강좌에 정식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교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많은 학생들이 과학적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험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번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화학단위공정 실험 시스템' 개발은 앞으로 실험을 할 때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노력과 학습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실험이 가능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국 · 가 · 보 · 안 · 법 · 첩 · 폐 · 정 · 치 · 수 · 배 · 전 · 면 · 해 · 제 · 양 · 심 · 수 · 석 · 방 · 을 · 위 · 한 · 전 · 대 · 기 · 련 · 공 · 동 · 광 · 고

"고령, 고쪽 우두머리도 왔는데 우리를 계속 적으로 규정하셨어? 하긴, 이번 8.15 대사면도 기만적이었던 하더만..."

# 9월, 그 비극의 진실이 밝혀진다 정치수배구역 JSA (Jungchi Subae Area)



"동무, 남조선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있다는구만. 이번에는 첩폐되겠지?"

남한 사회에서 더 이상 정치수배 구역은 필요 없습니다. 정상회담으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을 쓴 정치수배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북 동포들이 어깨동무 곁고 환히 웃기 위한 첫걸음은 국가보안법을 첩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닌 첩폐해야 합니다. 하여, 비전향장기수도 고향인 이북 땅을 밟는 지금, 정치수배자들에게 가족의 품에 안길 자유를 줘야 합니다. 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합니다.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홈페이지 www.free2000.jinbo.net  
9월 정기국회서 개폐 예정



국가보안법, 그 비극의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연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동명칼럼

경제위기의 단상



정성도  
동원증권 영남지역 본부장 · 경주캠 법학 98졸

현대건설과 대우차 사태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현대건설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 조국 근대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기업이다. 또한 지난 수 십년간 삼성과 함께 한국 재벌의 수위를 다했던 기업이었는데 이처럼 몰락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필자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대우차는 또 어떨까. 삼성이나 현대가 한국재벌의 시조라면, 자생적 재벌의 2대조라 할 수 있는 대우그룹의 중심에 서있으면서 한 때는 그룹의 21세기 비전으로 제시된 '세계경영'의 표상이 되었던 기업이 아니던가?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기치 하에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의 재벌들은 오직 과업 지향적 경영철학 하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제 발목이 썩어 들어가고 내장에 중앙영아리가 생겨 커가는 줄 몰랐다.

IMF라는 결정적 카운터 불로우를 맞고서도 구태의연한 70년대의 잣대로 이미 었어진 다른 회사를 덩석 받아먹고, 금강산 관광, 소매 방북 등 눈에 띄는 사업확장으로 오늘날 비참한 물결이 돼 버린 것이다.

IMF 이후 새롭게 들어선 현정부는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1차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그 결과가 미흡하자 최근 2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재벌과 금융기관을 수술하여 국가 신인도와 경쟁력을 높여야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겠다.

그 와중에 최근 세계적 신조류라고 할 인터넷 또는 IT혁명과 관련하여 정부의 소신 없고 무계획적인 선진국 따라잡기에 따른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갑자기 일어난 벤처와 코스닥 열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전통 굴뚝산업이라 할 대기업과 제조업을 외면하고 무턱대고 벤처의 문을 두드렸다.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일반인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벤처들이 등록되어 있는 코스닥 바다에 튜브 하나 없이 뛰어 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단기승부를 노린 채 뛰어든 벤처기업들은 짧은 호황 끝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대책 없이 코스닥의 바다에 풍덩 뛰어든 수많은 직장인, 가정주부, 심지어 대학생들은 지금 하나 하나 숨을 거두어 가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 혼돈이 결코 남의 탓만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모든 것이 내 탓이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 상황

색깔있는 팀 다양한 주장

서울대, 사상최초 7개조 출마 ... 연대·한대, 복지·문화 등 특이 공약 제시

11월 대부분 대학들은 선거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미 몇몇 대학은 유세가 한창 진행중이다. 서울대는 총학생회 선거에 7개조가 출마했으며, 연세대와 한양대 선거에서는 예년에 비해 다양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제44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선거사상 최초로 7개조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서울대 선거는 NL(민중해방) 계열은 '6.15', '백박' 2개조가, PD(민중민주) 계열은 '민중민주', '바리케이트', '아크로폴리스', '발칙한 상상' 4개조가 출마했으며, 비운동권에 '드림벨트'가 유일하게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백박'과 '6.15'는 통일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중 '백박'은 반미를 거론하며 자주적 통일을 강조했다. '발칙한 상상'과 '드림벨트'는 학내자치와 복지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발칙한 상상'은 장학금과 도서자치위원회 건설을 '드림벨트'는 책상상 교환, 쉼터 설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안을 내걸고 있다. 또한 '민중민주', '바리케이트', '아크로폴리스'는 노동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중 '아크로폴리스'는 환경동아리와 연합해 새만금 사업 중단과 같은 환경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각 선거운동본부는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는 오는 21일부터 3일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례없이 많은 후보자 등록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제44대 총

학생회 선거에 출마자들의 집전이 예상된다.

연세대 총학생회 선거

연세대는 지난 8일 총학생회 입후보자로 등록한 4개 팀이 경선을 벌이고 있다.

NL계열 '청년개혁자 통일연세'와 PD계열 'The Radicals', '3' 그리고 비운동권 '대학애'가 38대 총학생회를 목표로 경쟁하는 팀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개혁자 통일 연세'의 공약은 통일에 초점을 맞췄다. '6·15공동선언 실천위원회' 구성, 통일관련·북한학 강좌의 확대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The Radicals'는 대학의 자치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자주관리 위원회를 수립해 모집단위 광역화 문제 개선,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3'은 학내공간문제해결, 제2도서관 건립 학생 참여 등 학내 복지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학애'는 다른 후보자와 달리 '대학 문화 살리기'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테마가 있는 대동제 기획과 신촌·대학 문화의 조화 등이 주요 공약이다.

내일(14일) 합동 연설부터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한 관계자는 "학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지면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선거에서 소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선거운동을 강의실 유세, 동아리 순방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선거 운동이 있은 후 투표는 22일, 23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 총학생회 선거

올해 8월 통일 대축전을 유치하는 등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한양대는 지난 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출마자의 성향은



살펴보면 NL 계열과 PD 계열, 비운동권인 기록학생 연합회에서 한 조씩 출마했다.

NL 계열은 급변하는 통일정세에 한양대가 앞장 서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과 학술문화재단 공동 개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PD 계열은 '한양, 그 가능성과 연대하라! 꼬투나르드'라는 구호로 출마했다. PD 계열의 공약은 그동안 총학생회가 목적으로 운용해온 학생회비를 예산자치제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과 우수 레포트 모음을 CD로 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L과 PD 계열은 향후 10년간 한양대의 교육개편 계획과 내년에 예상되는 등록금 인상에 공통적으로 반대했다.

이외에도 비운동권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등 독특한 선거전략으로 타 후보에 맞서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선거 분위기는 대체로 소강상태이다. 누가 출마했는지 모른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각 후보자들도 선거 공약을 완전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좀 더 진행되면 선거 분위기가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오는 15일에 세 후보의 합동 유세가 실시되며 22일과 23일 투표가 진행된다.

기획부  
imperial@dongguk.edu

중앙 학생기구 공약사항

총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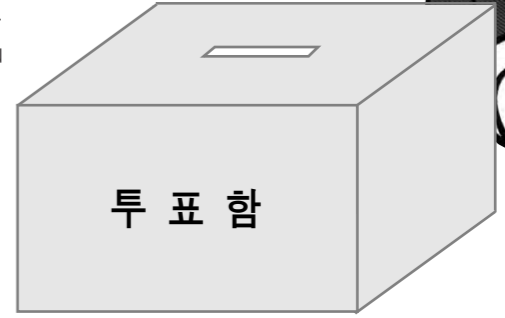
- △열리는 통일시대, 우리가 만드는 통일 학생회가 있어 든든한 나의 대학생살, 학생회를 학생회답게
- △2001년 부당한 등록금 인상저지, 교육재정확보
- △2001년 새내기 새터 학우들과 함께, 학교와 함께 성장
- △2000년 새터사망학우 추모사업 집행, 부상학우 대책마련
-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주인되는 생활건설, 생활독립법안화 추진

총여학생회

- △반성폭력 학칙제정
- △성폭력 근절 토론회 주관 개최
- △단과대별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추진
- △여성주의 여성기행
- △여학생 복지향상
- △여성학 도서서관 건립

총대의원회

- △학생회 강화
- △학년별 대의원 모임의 활성화
- △1학년 대의원의 교양 강화
- △감사, 선거, 예산분배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실행
- △광역화에 따른 회칙개정
- △동우팀의 여론화
- △스피커 '합성' 재발간



# 학생과 호흡하는 자치기구로 거듭나라

11월 선거를 맞아 서울캠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 의위원회와 경주캠 총여학생회의 각 후보자를 인터뷰 했다. 질의 응답 형식으로 선거공약과 주요사업 계획을 들여본다.

<편집자>

## 총학생회 입후보자

### “오랜 친구같은 열린 조직으로”



부=김덕기(경영3) 정=김홍민(지교4)

2001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후보 김홍민(지교4)군과 부후보 김덕기(경영3)군을 만나 출마동기와 공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33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동기는.  
=정 동약의 많은 학생들이 서로 따뜻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다. 또한 학생회가 대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다.  
부 언재부터인가 학생회를 몇몇 사람들만의 조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까웠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지주 동약의 죽마고우' 의 의미는.  
=갈수록 멀어지는 학생들과 학생회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죽마고우(竹馬故友)'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렸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비판하고 칭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의견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제작,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 지난 32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사업을 평가한다면.  
=대중적으로 함께 하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회 체계간 긴밀한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의 평가나 이월작업이 미흡했던 점이 아쉽다. 이는 33대 총학생회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2001년 새내기 새로배움터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지.  
=지난 새터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아픈 기억을 남겼다. 내년 새터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학교측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음 새터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터사고 보상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

-진정한 '동국발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내 민주주의가 제모습을 찾기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의 성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98년 논의되었던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할 예정이며, 본교 95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대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김은선 기자  
ppzic@dongguk.edu

## 총여학생회 입후보자

### “바람직한 성문화 뿌리내릴 터”



정=전이지숙(회계2) 부=양김유미(영문2)

'공감의 가능성,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전이지숙(회계2)·양김유미(영문2)양을 만나 선거 공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출마동기는.  
=정 남성 우월 주의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인권을 침해 당한 채 살아왔으며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사회에서 여성으로 겪어보는 어려움들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고 싶다. 대학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출마를 결심했다.  
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비판의식을 갖고 학내 여학생들과 뭉쳐 하나씩 해결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다.

-제14대 총여학생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먼저 학내복지 향상과 다양한 행사 개최 등 전반적으로 제14대 총여학생회의 공약 이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토인 '공감의 가능성,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여학생만이 공감 할 수 있는 주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성폭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담론화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을 수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K교수 사건 해결 과정을 돌아보면 해결 방법에만 치우쳐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같은 원론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지 못했다. 반성폭력 학칙제정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추진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재정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청회 주간을 만들어 반성폭력 학칙의 필요에 대해 공론화하고 각 학과별로 자치규약을 정해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 총대의위원회 입후보자

### “학생회 강화로 공동체 삶 실현”



유승우(아시아지역4)

'참담약의 뿌리! 동약을 깨우는 240 대의원의 힘찬 도약'을 구호로 내걸고 총대의위원회 대의원으로 입후보한 유승우(아시아지역4)양을 만나 출마 동기와 주요 공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출마 동기는.  
=총대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한해 동안 학부제로 학생회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학부·학년 학생회 대표의 지위와 역할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제32대 총대의위원회를 평가한다면.  
=단과대 대의위원회가 활성화되었다는 점과 학과 대표들이 단과대 감사를 직접 실시한 '자치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선거, 감사, 회칙개정 등 총대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학생회 사업에 대한 교양이 부족했다.

- '참담약의 뿌리! 동약을 깨우는 240 대의원의 힘찬 도약'이 의미하는 것은.  
=학생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지만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240 대의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3가지 공약 중 '학생회 강화방안'에 대한 공약은.  
=총학생회가 하는 사업들을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총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대의원들이 학과 학생회 대표들에게 다시 보고해 총학생회 사업을 학생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학년별 대의원 모임'과 '대의원 교양사업 강화' 공약은.  
=학과 대의원들이 혼자 사업을 진행하다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학년별 대의원 모임은 학년별 과대표와 대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나누고, 학생회 사업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년별 대의원회 등을 통해 수시로 학생회 사업에 대해 교양을 할 것이며, 총대의위원회 기관지 '함성'을 재발간해 대의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중 기자  
dizzi20@dongguk.edu

## 경주캠 총여학생회 입후보자

### “학생참여 넓히는 연대활동 마련”



정=이현(고미사3) 부=한영은(정보산업3)

자매애적 연대성의 뜻을 담은 기치 아래 17대 총여학생회에 입후보한 정=이현(고미사3) 부=한영은(정보산업3)조를 만나 출마하게 된 동기와 주요정책과 공약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출마동기는.  
=온방골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여성운동도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개선이 아닌 여성이 원래 가져야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

-16대 총여학생회를 평가한다면.  
=온방골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잘못된 인식을 깨고자 했던 최초의 총여학생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페미니즘 관련 행사로 여학생들에게 총여학생회를 알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전체 여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후로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작은 활동들을 활성화하지 못해 아쉬웠다.

-주요정책이나 공약사업의 중점은.  
=△성 차별적 인식을 바꿀 호주제 폐지운동 △여학생 휴게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체계적 관리 △교정관념을 없앤 성 정체성의 풍토를 조성 △성폭력 상담 및 고발 센터 운영을 통한 반성폭력 운동 등이 중점사업이다.

- 지난 10월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견해는.  
=성폭력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으며 징계도 경고장 발송이나 사과문 게시의 가벼운 처벌이라 성폭력 예방에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앞 뒷말이 맞지 않는 내용도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며 범용직용이 학생들에게만 머물러 있어 아쉽다.  
빠른 시일 내 학칙으로 제정돼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안은.  
=연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위원회를 건설하고 여학생 대표자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여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성가요제, 페미니즘 전시전과 같은 문화제를 개최해 여학생들과 같이 호흡해 나갈 것이다.

김남정 기자  
hanaby@dongguk.edu

소나기

이제는 말한다. 북파간첩



△우리 아빠는 술만 드시면 자신이 북파간첩이었다고 우긴다.  
 △북에 가서 살아온 간첩이 있나요?  
 우리는 쉬쉬하는데...  
 남파 간첩은 비전향 장기수에 섞여서...  
 △드디어 터졌구나!  
 우리 동네 바로 옆에서 개들 훈련시키던데...  
 △국정원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국정원은 양지를 지향하고 양지에서 일해야.  
 △이들도 나라를 위해 일한 애국자?이다.  
 △간첩신고는 113. 화재신고는 119.  
 △가게(비전향장기수) 있으면  
 오는게(북파간첩) 있어야지...  
 △대통령도 가기 힘든 북한을 몰래 갈 수 있었다나...  
 △북한엔 땅굴이 몇 개나 나올까?  
 △북한에서 전향서를 쓴 사람도 있겠지?  
 △북한에 간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  
 △북파간첩 중에는 여자도 있겠지.  
 △월급은 주나요? 그러면... 어디로...  
 △북파간첩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너무나 햇볕정책,  
 그들은 과연 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북파간첩 2형식  
 북 : 북한에 간 최불암. 그가 던진 한마디  
 파 : 파~하~  
 △그들이 '공동경비구역JSA'를 봤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남파간첩과 북파간첩 서로 바닷속 헤엄쳐 오다  
 만났다면...  
 △그들만의 암호는 아마도  
 '군용건방안에 별사탕이 있다'?  
 △북한방문. 차기 노벨평화상 후보?  
 △그들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실업객정은 없다.  
 △최수종이 생각난다. 예전 그드라마...  
 △사형수를 데려다 죽이지 않고 간첩으로  
 보냈다면...  
 △이제는 말한다! 아직 말하기 이르다.  
 △북파... 남파... 서로를 몰래 지켜보는 간첩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슬프다.  
 △이것도 하나의 스틸만점 직업이다.  
 잡하면 죽고 살아도 벌 수 없다.  
 △이제는 말한다. MBC 다큐멘터리 시리즈?  
 △북파간첩은 미혼이었을까? 기혼이었을까?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우리동포들...  
 △이제는 북파간첩에 대해 말해주세요.

오스기

방은영 (사과대 신방3)

소강당 영화제 이끌어가는 '괴짜'

## 기발한 아이디어로 학생들 참여 유도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소강당 영화제는 막상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요일이면 무작정 찾아오는 '소강당 영화제 매니아'도 생겼어요"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레 말을 꺼낸 이사람은 다름 아닌 소강당 영화제를 처음 제안한 방은영(신방3)양이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 활동하던 어느덧 3년째인 방은영양은 지난해 5월 처음 문을 연 소강당 영화제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도록 충주적 역할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소강당 영화제는 학생들과의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1년 남짓 지난 지금은 학내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시작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입가에는 이젠 회심의 미소가 가득했다. 영화제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영화적 취향을 맞출 수가 없어 극장에서 간간히 내려진지 얼마 안되는 영화를 긴급 입수해 상영한다. 매주 상영될 영화를 선정하기 위해 학복위 식구들 처음 제안한 방은영(신방3)양이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 활동하던 어느덧 3년째인 방은영양은 지난해 5월 처음 문을 연 소강당 영화제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도록 충주적 역할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소강당 영화제는 학생들과의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1년 남짓 지난 지금은 학내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

기발한 상상력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학복위의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 또한 그녀의 자랑거리이다. 지난 대동제때 불량식품을 판매했던 사업은 불량식품을 먹는 학생들을 우연히 길에서 보고 착안해 낸 것이다. 또한 학부제가 되면서 서로 모르고 지내는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친구들과의 교분을 쌓기 위한 '학내 우체국'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스로를 '괴짜'라 부르는 방은영양. 학업 공부 이외의 것들에는 점점 관심을 두지 않는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개를 때가 많다고 한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길 권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그녀가 가진 기발한 상상력을 이용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학생들의 하나됨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여학생 생리대 재판기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번씩 월경을 한다. 그리고 월경을 할 때는 일명 생리대라고 하는 생리용품이 필요하다. 경주캠퍼스의 약 8천명 학생 중 반이 여학생이다. 하지만 여학생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리용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은 학생회관 화장실 코너와 보건소. 그 밖에 화장실 자동판매기뿐이다. 한번이라도 써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동판매기의 문제점은 돈을 넣어도 잘 나오지 않거나 두 종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수품 중의 하나지만 그런 것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여학생회에서 설치한 자유생리대 보관함은 신선하다. 장사속으로 만들어진 자판기의 불편함 인식을 말하고 무료로 물건을 제공하려는 점도 좋게 생각한다. 하지만 진흥관의 경우는 식당 앞이고 원효관의 경우는 휴게실에 근접해 있는 화장실 북도라서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의도와 조금 벗어난 듯하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꺼내야 하기 때문에 수줍음이 많은 여학생의 경우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좋은 의도를 살려서 화장실

에 설치해준다면 좀더 많은 여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은주 (외국어문학부2)

## '아르바이트' 가치있는 일

예전과 달리 아르바이트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해져 있다. 대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나 역시 잠시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느낀 점이 있어 미흡하지만 몇 가지 적어 보려한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좋았던 것은 돈과 시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무심코 흘러보냈던 시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소중하게 느껴졌고 아깝기만 했다. 그리고 돈을 벌 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깨닫게 되어 예전과 달리 돈을 쓰는 것에 더 신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리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일을 하는 보람 또한 즐거운 경험이였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잃은 것도 많았다. 일단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고나 할까?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개인적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웬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었다. 내 생활이 학교생활이 아닌 아르바이트에 맞춰 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경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물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라면 말이다.

주현수 (사과대1)

## 현대인의 메말라가는 인정

수업시간이 되면 강의실로 들어오신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고 강의는 시작된다. 이것은 어느 강의실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하나 뭔가 빠진 듯 한 허전한 느낌이다.

"안녕하십니까?" 초·중·고등학교 때는 반장의 구령에 맞춰 매 수업마다 선생님께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예의와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교수님께 인사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인사는 모든 예절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반가움을 나타내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 책임감 있는 모습 기대

〈제1306호 11월 6일자〉

그동안 스스로 외면해 오던 면을 이번호에는 유심히 읽어 보았다. 사회면에서 다룬 '만화 광수생각'에 대한 기사는 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별생각 없이 보아온 만화가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반면, 만화를 만화로서만 평가하지 않고 너무 하나하나 짚어내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다.

반 조선일보운동은 익히 알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관히 마녀 사냥식으로 광수생각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한 번쯤은 해보아야겠다. 많은 학생들은 동대신문을 통해 학교 소식과 여러 사회 이슈들을 접한다. 금요일정도면 어김없이 비어있는 동대신문 배포대를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동대신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책임감 있는 동대신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기순 (경영대1)

## 구체적 인권운동 제시해야

문화면에 실린 '동상에 인권운동, 태풍의 눈'이라는 기사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더욱이 근래에는 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물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한다. 단순한 동아리의 열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권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는가 등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정선영 (관광경영학부2)

# 동악광장

### 목격길

축하합니다

△화영이의 취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1/13일 인사)  
 △태준오빠 생일 축하해요. -애기가  
 △오빠. 감미리 당선축하해~♡  
 -국교 99일동  
 △인화야, 해진야! 생일축하해! 이제 너희도... -핑크팬더  
 △축하합니다. 국교과를 이끌어간 선임 이&은주 열심히 할거지? 당근 -변·성·기  
 △철원이 하사관 기술모병 지원을 축하한다. -5  
 △사랑하는 동규오빠 연세대학원 합격... 다시 한번 축하해요. -오빠의 Helper가  
 △길상의 Birthday Happy 축하. -11/13 2:8 vs 김하는 선거운동본부  
 △정야야, 결혼 축하하고 성국오빠랑 열심히 살아라. 아이도 순풍순풍 잘 낳고 사랑해!! -지교 민주·선희  
 △민이&영재 백일 축하해. -79년생 K모씨  
 △형민아! 휴가나와서 너무 반갑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이재광씨!! 당선 축하드립니다.  
 △리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름

### 수고하셨습니다

△문과대 미진 준영, 선거 하느라 수고했다! -zzinta  
 △현정아! 이번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냈다. 수고했다. 이제 난 못할 일이 없다. △늦었지만 우리 연극의 이해 발표한 1조 모두 수고했어요. 이번주에는 풍파티 한번 해요~  
 열심히합니다  
 △cyber과 주원, 태영, 동희, 보영! 열심히 하자! -coolfox  
 △보영아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해서 후회 남지 않는 4학년이 되길 빈다.  
 △내 동생 장호야! 수능시험 잘 보거라. 너무 긴장하지 말구... 화이팅! -누나  
 △새터내고 해결을 위한 부상자대책회의 회 모두 힘써서 "그거" 해냅니다. -랄  
 △한해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규현이 상아 더 좋은 변성기 만들기 바랍니다. 알곳나 아그야~ -떨어진 똥들  
 △수경야 발표잘했니? 열심히 해라.

### 그리고...

△한결같은 내 친구 길족이(선영이) 고맙구 마니마니 사랑해! -식공과 김광택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다. 없어져라.

# 온방길

### 축하합니다

△행정원장 철용아! 18일, 24번째 생일 축하카~^^ -행정패밀리  
 △Newsweek의 13번째 공개발표회를 진심으로 제 23대 회장, 부회장이 축하합니다. 고생한 만큼 결과가 있을 겁니다. 뒷풀이 시원하게 한잔합시다. Life is too long to live like this. -前前 회장, 부회장  
 △11월 11일 우리 풍이 생일이예요. 축하해. -준석  
 △고전음악 감상실~!! 레코드 감상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호미  
 △정훈이 오빠 취직(?) 축하해요. △Y.R 휴가 나온거 정말 추우카!! △영진이와 저의 백일 축하해 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13~16일까지 불교아동학과 학술제가 열립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한 13대 학생회 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학회장(수경), 기획부장(진희)가♡  
 △불교아동학과 과내 동아리 가름빈가 15일 공연합니다. 모두들 수고했구요. 끝까지 잘하자. 이쁜 후배들아. -연니가

### 축하합니다

△현수아! 공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했어! -미릭 300호 관생  
 △야간강좌 총학생회 회장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현수 파이팅!  
 -아·송 관계자 일동  
 △고적연구회 사진전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19기 일동  
 △국문과 김부님을 학술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법학과 학생회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민 그 이름 영원히걸... -법(이)학부 일동  
 △호우회 20대 회장단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세요. 성훈, 여정 그리고 진희 파이팅!!!  
 -호우회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민 스님 요즘 수고가 많소. -39기

### 열심히합니다

△수호재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 보이더군요. 다들 임기 며칠 안 남았으니가 열심히 합니다. -佛敎  
 △자연대 학생회 선거!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경야야 내 과제물까지 열심히 해. △이번 겨울엔 꼭 비행기 타야지...열심히 해. △이 가을이 다 끝나가려 합니다. 동대생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책 한권이 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 그리고...

△친구야! 수업시간 딴 짓 하지 말고 열심히 할게 알았지?  
 그리고...  
 △재도야! 방송하러, 야구하러, 공부하러, 수고 많다. 기운 내고 열심히... 사랑해!  
 △마음소리 25일 발표회 연습에 참가이당!! △국사학과 95학번 3학년 다음주에 사진 촬영 있습니다. 마지막 가을을 멋지게 남깁시다. 병두, 재우, 혜성, 광철, 각호, 광선... -호기  
 △삼규오빠! 참도활동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연애도 좀 신경써요. -검은 단발 아  
 △임용(행정4) 졸업시험 도끼로 파파 찍어. 수석합격!! -일사모  
 △한 학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1년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직 60일 가량 남아있는 2000년을 모두모두 열심히 지내시길...  
 △용규형! 홍명보 부인은 소프라노 조수미가 아니에요!! 정신차려요. -쓰리東  
 △해정 선배 빛 같으세요.  
 △나 이제 정말 공부 시작한다.  
 △이제 나도 술집에 멋있게 들어간다.  
 △우리 귀염둥이 사랑해~ ~여여  
 △한재석 님은 분 한번만 돌아봐 주세요?  
 △출범 오부동아리 회장: 흠뻑 회원 모집 중.  
 △경야야! 미팅 좀 그만해. 니가 우리 학교 애들 다아 섭렵하겠잖아.  
 △정희야! 우리 프로젝트 아직 유효하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

찬성

반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음식물반입금지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번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를 많은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측에서 음식 배달을 금지한다는 것이 옳지 못하고,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음식물 반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을 반입하더라도 먹고 깨끗하게 치운다면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학교 환경 정화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나 역시 자주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내 입장에서 음식물 반입은 매우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학교측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기는 힘들게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먹고 잘 치우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측이 최후의 방편으로 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것이다.

보통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중국음식을 주로 배달시키는데, 전부 먹지 못한 채 그대로 놔두거나 혹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더라도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조금씩 흘린 음식물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나가기 귀찮다고 음식물을 시키는 학생들이 가끔씩 학교 식당을 이용한다면 굳이 음식물을 반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부득이하게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나가서 먹고 오거나 학교 내 식당 운영이 끝난 시간대에는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 반입금지조치를 잘 준수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 더욱 쾌적하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동국 (불교대1)

언제부터나 조용히 어둠이 깔린 밤이 오면 환히 불 켜진 동아리방을 생각한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우리의 행복을 만들고 있을거라 늘상 생각하곤 했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별었던 술자리. 또 거기에서 벌였던 락부이, 라면, 튀김, 냄새 풀풀 풍기며 먹었던 짜장면. 그리고 열심히 했던 토론행사.

그러나 언제부터가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 라는 이 글귀에 막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먹었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1단계, 대학 정문에서부터 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봉쇄할 것. 2단계, 각 단과대 건물 음식물 반입 또한 경비실을 통해 통제할 것'

몇몇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야식을 먹는 것조차 '관리' 당하고 있는 셈이다.

무조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식개선 유도조차 배제한 무조건적인 금지조치는 부적절하다.

학내에 음식물 찌꺼기를 방지하는 학생들과 빈 그릇을 여러사람들이 다니는 복도에 아무렇게나 놔두는 지성인답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무조건 학생회관을 요주의 통제 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히 봉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결정이었다.

빈 그릇은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지정하여 모아두도록 유도를 해 보고 음식물 찌꺼기는 분리수거 제도를 활성화했다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을 것이다.

떡볶이 한 봉지를 사 들고 오다가 심한 제재를 당한 내 친구는 아직도 학교당국의 이번 조치를 이해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학생들 반응은 '가우뚱'이다. 갑자기 취해진 이번 음식물 반입 금지 조치는 좀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김지선 (문과대1)

1970. 11. 13.

2000/11/13 12:21  
-임소희- takethepower@naver.com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너.  
나를 모르는 모든 너.  
부탁이 있어, 나를, 라는 아흔여 너 영희의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바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랍에 간직시켜주게.  
외식반개가 이 같은 후원을 태우고 깎기바니고 해오  
기들이 내게만 꺼려 버려라 해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 두렵지 않은걸세.  
그리고 만약도 두렵음이 없다면 나는 나를 영희의 버릴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희의 일복인 나.  
그대들의 앓은 과거에 보지 않게 감사했네.  
미안하네, 후회하네. 테이블 중간에 내의 과거를 마련해주게.  
원심사와 재정이 중매하면 더욱 좋겠네.  
과거를 마련했다면 내 발들 듣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복인 나.  
같이 겨우, 같이 겨우 풀레마 다 못 풀린  
그리고 또 풀레마를 덩이를 내의 내인 그대들에게 말한 것  
같이 다시러갈세. 잠시 쉬러갈세.  
어디든 반의 무기와 중환자 질타기  
구어되지 않다가도 모른, 양귀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대 풀린 덩이를, 덩이를  
무저러게서 풀러라 해.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구방한다기까지도  
풀러라해, 풀러라해. 단물수만 있다면  
일들 수만 있다면.....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 특별기고 - 새터사고, 그 이후를 돌아보며

## 기억속 잊혀진 새터사고 무관심이 빛은 결과

### 부상학생들 보상문제 ... 학교와 총학 책임의식 결여

벌써 9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다. 9개월이 지나면서 미시령 사고는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살아남았던 37명의 부상학생들은 지금도 새터사고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사고당시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때문만이 아니라 사고 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

2000년 2월 17일, 새내기새로배우터 준비차 하루 일찍 속초로 향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7명의 99학번 학생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소위 새터사고다. 사고 당시 학교측은 모든 특진비, 간병인비의 지급과 보상문제의 해결을 약속했고 부상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학교측의 태도를 신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측은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대책회의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또한 특진비와 간병인비도 형평성 있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몰라서 사비로 충당한 경우, 간병인비를 요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퇴원 후의 계속되는 통원치료에 대한 비용은 학교측이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학생의 치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학교측의 처음 약속과 다른 것이다.

물론 학부모 대책회의의 요구안 중에는 학교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측이 좀더 넓은 아량을 베풀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새터를 준비했던 총학생회 역시 4월 이후 학교와 학부모님간의 의견조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했다. 같은 학생으로서 부상학생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구보다도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총학생회의 이러한 태도는 부상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원망을 샀다.

학교측의 말처럼 책임을 따지자면 부상학생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

다. 누구도 사고를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고통받고 있으며 어떻게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느냐이다. 얼마 전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했다.

"신입생 과음 사망사고 MIT, 학교책임 인정 유가족에 보상금 지급... 미국 MIT가 1997년 남학생 사고를 겪은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음으로 숨진 학생의 유가족에게 475만 달러(약 5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MIT의 총장은 직접 부모님께 사과 서한을 발송하고 학교측의 알코올 교육과 교내 정책이 부적절함을 시인했다. 이 기사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 보상 액수가 아니라 학생에 대해 학교측이 보여주는 성의와 관심이다. 부상학생들이 학교측과 총학생회에 바라는 것도 이것이다.

보상문제 해결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닌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부상학생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김홍민, 김덕기 선거 운동본부에서는 올해 총학생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부상학생들과 함께 새터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이번주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많은 학생들의 동참과 따뜻한 격려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 한 순간에 장애를 짊어지게 된 많은 부상학생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다.

한아진 (문과대 33)



지난 3월 열린 학교와 학부모간의 새터사고 부상자 대책회의 모습

### 매체비평

- 인터넷 사이트 편

'www.deathclock.com  
www.angelletter.co.kr'

"생의 마지막을 예고한다!  
그냥 웃자는 건데 화낼거  
없잖아"



죽음의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deathclock 사이트.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세상에 대한 미련마저 사라져갈 즈음, 편지가 오기 시작한다. 마치 이별 줄 알았다는 듯 남편은 아내에게 유언을 준비했던 것이다. 몇 해전

이맘때 눈물 콧물 다 빼놓았던 영화 '편지'의 마지막 장면이다. 불치병으로 조금씩 죽어가면서도 삶을 정리하고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대부분 여자들) 애절해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처럼 삶을 정리하고 못다 한 말까지 남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사람에게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신이나 신앙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점쳐보려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만 거듭 확인했을 뿐이다. 첨단을 걷는다는 21세기

의학의 힘으로도 삶과 죽음의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세력을 하다보면 삶과 죽음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눈에 띈다. 죽음의 시간을 알려준다는 www.deathclock.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와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전해주는 www.angelletter.co.kr이 그것이다.

www.deathclock.com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건강에 해가 되는 요소들(술, 담배, 약물 등)을 피하면서 살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의문의 사고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될 경우로 나누어 죽음의 날짜를 예고해 준다. 각각은 30년에서 40년 기량의 차이를 보이며 남성보다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길게 나타난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평균 수명이 80세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www.angelletter.co.kr은 하루 생활 중에 문득 떠오르는 사연이나 유언 메시지 등을 원하는 날짜에 전해주거나 유언 일기를 만들어 보관해주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이트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미리 유언 다 해놓고 죽어버리자'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한 번 웃자,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자는 애교스러운 아이디어일 뿐이다. "이정도 시간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빨리 죽을 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유언도 마찬가지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씩 지축하면 죽음을 위한다고 보다는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기부터 죽음을 향해 한발씩 다가서는 단계를 밟아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같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방탕한 생활, 사람에게 상처내는 말들을 수 없이 되풀이하는 걸 보면 말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눈동자는 흡사 어린이의 그것과 같다고 한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다다르자야 무언가를 깨달는 것이다. 잠시라도 미리 죽음을 떠올려보면서 스스로를 정화해보는 것은 어떨까.

최은진 문화부장  
funny@dongguk.edu

# 표절로 얼룩진 대중문화는 가라!

## 수용과 생산의 부패구조 ... 반성·토론으로 돌파구 찾아야

모방은 창조 어머니라고 했다. 파리의 몽마르뜨 화가들도 대가의 작품을 모방하고, 문학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규정자를 수 없지만 결국은 모방일 수밖에 없는 습작의 과정들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성장한다.

경지에 이른 예술가의 작품을 따라하는 것은 그들의 자취를 느끼는 행위이며 배움의 과정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본질을 잃고 상업이 되면 '표절'이라는 범죄행위로 평가절하된다. 모방의 결과물을 자기의 것인양 발표하는 순간부터 예술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수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 대중문화는 실재없이 표절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특정한 장르, 특정한 시기를 떠나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기현상이다. 더구나 압연기에 소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표절의혹은 인터넷 보급에 편승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 대중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사회의 결과로 '대중'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문화상품의 생산·소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분책으로 표절이 합리화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문화에 대한 표절이 성행하고 있는 요즘, 표절의 원인에 대해 고정일(경희대 영문과·

문화평론가) 교수는 "아직까지 일본에 대해 반일 감정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본문화 표절을 주도한다는 사실은 차라리 희극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원인은 '생산'과 '수용'의 부패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수용의 부패구조는 일본문화수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던 기간동안 음식적으로 유입된 일본문화가 암시장을 형성해온 것이고, 생산의 부패구조는 일본문화가 시장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지배적인 영역까지 침범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 다국적문화들의 집합체가 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분별한 표절에 의한 대중문화는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생산과 수용의 부패구조가 악순환되는 것이다. 대중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서태지, 10대들의 우상이라는 H.O.T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은 암울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만화는 없고 '망가'만 존재하는 현실도 우울하기만하다. 점진적인 문화개방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표절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문화식민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덜어두고 쉬쉬한 채 면죄부를 주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표절시비를 명확히 가리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중문화의 돌파구는 없다. 표절로 얼룩진 대중문화 30년사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움직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인터넷 바다 속, 각계 각층의 매니아 층이 개설한 표절관련 사이트들은 흡사 전쟁터를 연상케 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표절을 잡아내는 일등공신인 매니아들, 이들은 각 통신과 인터넷상에서 우리 문화 곳곳에 숨어 있는 표절을 찾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의 행보는 특히, 가요나 영화 등에 많이 나타나는데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이들의 감시안테나를 비껴나가지 못하고 있다. 매니아들은 끊임없이 표절의혹을 내비치며 당사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지식을 통해 표절의혹을 제기하고 그 흔적까지 어김없이 잡아내는 것이다.

지난 96년 떠돌이였던 가수 김민종의 '귀천도'라는 곡의 표절사건도 PC통신상에서 벌어진

의 가요프로그램 '뮤직파이터'의 DJ 레규는 '비수구리'라는 코너를 통해 표절천군인 우리 음악계의 표절현황을 찾아 공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세상의 매니아들이 잡아내는 표절은 끊이지 않는다. 얼마전 시작한 KBS TV의 '천둥소리'라는 드라마는 KBS 홈페이지 내의 게시판을 통해 김택환씨의 소설 '허균, 최후의 19일'을 표절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으며, 김규리가 주연했던 영화 '산전수전' 역시, 네티즌들이 일본영화 '비밀의 화원'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관련을 사 리메이크 영화로 이야기를 접었다.

이렇듯 매니아들이 펼치는 표절과의 전쟁은 우리 문화의 창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 네티즌, 표절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토론을 통해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본음악을 즐겨듣던 대학생 김희갑 군의 표절의혹에서 시작된 PC통신상의 토론은 그 내용을 가수 본인에게 전달하고, 작곡가에게서 표절사실을 확인한 가수 김민종이 은퇴하면서 일단락 지어졌다.

이외에도 당시 PC통신상에서 벌어진 토론은 가수들의 음악표절은 물론, 앨범 자체 표절, 복장과 악세사리 표절까지 다방면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러한 PC통신 매니아들의 표절과의 전쟁은 인터넷이용이 급증하면서 현재는 그 터를 점차 인터넷상으로 옮겨오고 있다. 김희갑 군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거비의 표절정보'(http://iforyou-capsong.co.kr)라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레츠캐스트'(www.letsccast.com)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하지만 일부는 판단과 착오로 표절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컴백한 핑클의 타이틀 곡 'NOW'가 이런 경우이다. 한 게임의 배경음악에 사용된 곡을 그대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게임삽입 음악과 'NOW'의 작곡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 걸친 매니아들이 보여주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단지 표절의혹을 던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창의적이고 고요한 우리 문화를 찾아내고 정립하는 방향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 나는 네가 지난날에 한 표절을 알고 있다

#### 드라마 이브의 모든것

지난 4월부터 인기리에 방영됐던 MBC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은 일본문화 '사랑의 기적'(모리타 유코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주요 등장인물의 관계설정과 두 여주인공이 성공을 위해 대립하고 사랑을 그리는 줄거리가 흡사하다. 다만 두 여주인공의 직업이 연기자와 탕커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 영화 접속

마지막 장면이 두 남녀가 만나는 것으로 끝을 맺은 영화 '접속'은 일본영화 '하루'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두 영화는 PC통신을 통한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죽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레조드판과 모자, 극장 표와 디스크 컷이라는 유사한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낮은 영상까지 선보여 완벽한 표절시

비에 올랐다.

#### 패션 이의정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텔런트 '이의정'의 패션 아이템은 일본탤런트이자 가수인 '시노하라 도모미'의 이미지를 따라한 것이다. 빼빼뚱뚱한 머리 모양과 독특한 메이크업, 특이한 색상의 옷들로 시선을 모았지만, 시노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특히 핼로우 키티 의상과 액세서리 연출이 똑같은 자적을 받았다.

#### 음반 이지훈

가수 '이지훈'의 앨범재킷은 일본 록가수 'Gay Review'의 앨범표지를 디자인에서 색상까지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표절논쟁이 짙어지자 이지훈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킷이 특이해서 따라했다고 표절사실을 인정했다.

### 고수가 권한다



송 일 호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교수

#### 대통령의 경제학



"부즈벨트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제학 비전문자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경제학위원을 거쳐 경제전문인으로 활동해 온 저자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시대별로 정리해 놓았다. 역대 미국의 경제학자와 당대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21세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허버트 스타인 저/ 권승혁 역/ 김영사/ 정가 1만 8천원.

#### 나는 한국이 두렵다



"우리 민족정서와 문화를 외국인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상주하는 미국인 저자가 느낀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장단점을 에세이로 풀어놓는다. 청공장을 좋아하고 한국인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저자의 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문화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제프리 존스 저/ 중앙 M&B/ 정가 7천5백원.

#### 인사이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한 박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대 기업의 비리를 폭로한다.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리셀크로우, 알파초노 주연/ 마이클만 감독/ 터치스톤, 1999.

#### 박화요비 집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가사를 통해, 진정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들려주는 음악을 통해 갈수록 가벼워지는 사람에게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실력있는 신인 박화요비가 들려주는 호소하는 듯한 음성의 R&B 선율이 타이틀 곡 '1'과 함께 음반전체에 가득하다. 신촌뮤지/ 정가 1만2천원.

### 메아리

#### 30년이 지나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13평 작업장. 백백이 들어 앉은 14명의 여공들. 드르륵 드르륵 미싱을 타는 그들의 몸은 하루 15시간의 혹독한 노동으로 지쳐있다. 이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폐병에 걸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하루하루 생명을 팔며 살아간다. 1970년 11월 13일, 20대 초반의 한 젊은 노동자는 자기 몸을 기름을 붓고 불을 당겼다. 비인간적 노동 착취에 저항하며...

▲97년 겨울 불어닥친 IMF 한파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성장을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실직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정리해고는 합법화되고 노동시장은 유연화되었다. 경쟁육아와 문예발식 경영이 불고온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돌아왔다. 경제위기의 주범들은 또다시 이들을 밟고 경제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IMF 위기 극복 선언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올 해반기 거리에는 떡볶이, 오뎀, 봉어빵 정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가 기업회생을 발표한 이후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예상된다고 하니... 한 민간연구소는 연말 실업자를 1백만명까지 내다보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급증, 계약직으로 전환 등 노동시장 유연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무기력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가 가기전에 노동계의 강력한 동투가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기업 퇴출에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며 노동자들에게 지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가된 회생을 그 누가 감내하려 하겠는가? ▲서울 청계천 피복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책자를 가슴에

품은 채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30주기가 바로 오늘(13일)이다. 인간 불꽃이 되어 잠자고 있던 노동인권 문제에 불을 던진지 30년이 지났지만, 전태일 열사의 의지는 1970년 경제발전 이데올로기에, 지금 2000년에는 경제회생 이데올로기에 묻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김진아 편집장  
pazama@dongguk.edu

# 남산과 사람들



고진호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나는 남산 산행을 자주 하는 편이다. 산행이라고 해 봤자 특별한 마련 없이 단지 걷는 것을 즐기는 정도이다. 남산 산행은 쉽사리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자연을 완상(玩賞)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그 만큼 더한 것 같다. 그래서 남산 산행의 매력 중 으뜸은 망중한(忙中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주변 남산을 올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사계의 다양한 아름다움이 여느 명산의 그것에 못지 않다. 아름다운 산경치가 나의 생활권 역과 지근거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남산 산행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습 또한 소탈해

서 정겹다. 사색중인 노년들, 잠시 짬을 낸 듯한 양복 차림의 회사원, 땀겨름운동 중인 중년의 부인들, 리포트 작성을 위해 새를 관찰하러 나왔다는 학생들 모두 삶의 활력과 여유가 엿보인다.

간혹 시각장애인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주로 함께 산행을 하곤 하는데, 특히 부부가 늘 함께 산행에 나선다는 점이 여느 산행객들과는 좀 색다르다. 어느 날인가 남편의 지팡이에 서로를 의지한 채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한 시각장애 부부의 모습이 내게는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산행은 행복 그 자체였다.

그들의 모습은 그 날 어느 산악의 푸르름보다도 더 신선한 느낌으로 내게 다가왔다.

# 달하나 천강에

대개 부부간에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걷는 경우란 흔치 않다. 우리 부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우선 속스럽게 생각되고, 몸에 배어있지를 않아 부자연스럽다.

그 부부의 경우 장애로 인해, 서로간에 정감을 나누는 행동이 더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다. 정감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인간의 감성적 능력 중 중요한 한 부분이다.

어쩌면 정상인들이 정감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장애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육안(肉眼)의 기능이 정지된 그 부부는 정감을 감지할 수 있는 심안(心眼)을 갖게 된 듯 싶다.

2000 장애청소년 연극축전

# 세상 향한 발돋움



다운회 학생들이 공연한 '천사들의 합창'의 한장면.

'장애청소년 연극축전'이 지난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그 열한 번째 마당을 연다. 9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는 장애인들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자리이다.

먼저 이 축제의 개막식에서는 청각장애인 이종현씨 등 장애를 극복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세일 극장 주변에는 장애청소년들이 만든 공예품과 도자기 미술품, 생활용품 등 각종 예술품이 전시되어 이목을 끌었다.

또한 지난 9일, 다문증후군 청소년들의 재활교육과 상담을 하는 다운회 학생들이 '천사들의 합창'을 무대에 올렸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50년대를 배경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부자를 보기 좋게 골탕 먹이는 각설이들의 이야기이다.

연극 도중 한 장애학생이 대사를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아무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다. 실수를 한 장애학생은 해맑은 웃음으로 위기를 넘겼고, 관객들은 보다 큰 박수로 용기를 북돋아 주듯한 공연무대를 연출했다.

이렇듯 이 연극축제는 비록 30분 남짓한 공연이었지만 장애인과 일반인을 단단한 하나의 끈으로 묶기에 충분한 자리였다. 그 어떤 거대한 스케일의 무대와 지명도 높은 배우를 내세운 연극이라 할지라도 이 '장애청소년 연극축전'이 던져준 작지만 진한 감동을 흉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연극축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을 접한 학생들은 편지를 보내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그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며 "음츠려 있던 장애인들에게는 자신감을, 일반인들에게는 장애자를 보다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며 의의를 밝혔다.

음지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경하던 장애인들이 변하고 있다. '장애청소년 연극축전'을 통해 작고 서툰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방인으로서의 장애자가 아닌 내 친구로 내 이웃으로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장애청소년 연극축전'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지킬줄 아는 젊음이 아름답다

## 시민 질서의식 변화 ... 대학내 의식도 개선해야

"왼쪽은 급한 사람을 위해 비워둡시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구이다.

하루에도 수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바쁜 사람을 위해 한쪽을 비워두자는 이러한 운동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되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글로벌 에티켓의 하나인 것이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시민 질서의식 확립은 최근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줄로 서기' 운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5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변형운)'가 '한줄로 서기 전국추진선언식'을 개최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한줄로 서기' 운동은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 창구마다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줄에서 자기 차례에 따라 개별창구를 이용하는 새로운 줄서기 방식이다. 이러한 시민질서의 새로운 흐름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달라지는 시민사회 질서의식과는 달리, 대학 내 질서의식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본교 역사, 대학 내 질서의식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핸드폰 보급 초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업시간에 울리는 벨소리는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줄로 서기' 운동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건물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내 은행, 우체국 등에서조차 '한줄로 서기' 운동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식당이나 커피자판기 앞 등 기본질서가 생활화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질서의식이 발휘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은 것이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는 도서관이나 세미나실 등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도 버젓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문제다. '입실시 전원을 OFF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벨소리를 진동으로 전환한 후, 전화가 오면 소란스럽게 전화를 받기 위해 복도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는 것이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핸드폰을 꺼놓으면 불안하다"고 말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는 이런 기본적인 질서에 앞서 기계문명에 길들여지다 못해 중독되어 있다는 인상마저 들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사회가 바뀌어 가면서 그 사회마다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진다. 질서의식도 그 하나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느 사이인가 생활화되어 있는 기초질서가 있는가 하면 새로이 요구되는 질서들이 있는 것이다. '한줄로 서기' 운동이나 핸드폰 예절은 분명, 새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기본 질서인 것이다.

'지킬 것은 지킨다'라는 카피를 통해 깨어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 음료회사의 광고처럼 본교 학생들도 지킬 것은 지킬 줄 아는 지성인의 한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지하철역 내, 기초질서가 생활화된 시민들의 모습.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진단

# '순수 문화축제로 거듭나라'

## 사업성 치중 ... 내실있는 행사진행 요구

결과를 확인하기 전 성공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얻는 일은 쉽지 않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1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준비한 이들도 그렇다. 관람객 2백만 명 유치 목표로 긴 문화여행을 준비했지만, 적자 2백여원을 기록하며 예상치 못한 이변을 낳았다. 사실, 지난 98년 '새천년의 미소'로 열린 첫 번째 엑스포는 경주의 문화유산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색깔 없는 이벤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입장객 3백만 명의 시선을 끌며 모았지만 95억원이라는 적자도 감수해야 했다.



엑스포 행사장 앞에 설치된 캐릭터 화랑과 원화의 모습.

'만남과 아우름'의 두 번째 축제도 예외가 아니다. 개막 직후 불어닥친 태풍과 연이어 찾아온 추석 연휴는 행사장 전체를 어수선하게 했다. 더불어 시드니 올림픽에 집중된 열기는 자연스레 엑스포를 찬란 신세로 만들었다.

그러나 행사 기획에 시도된 변화는 눈여겨볼 만하다. KIST와 함께 준비한 '서러벌의 숨결'이라는 주제영상은 첨단기술과 문화의 접목을 시도해 통일 신라 천년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재현했다.

뿐만 아니라, 가을 국화 4만 송이를 수놓은 평화통일동산은 엑스포 제일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주차장 시설의 바가지 요금과 도우미들의 냉담한 태도는 관람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나머지 전시·공연시설도 예년과 변함없었다. 단순히 둘러보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면치 못

했던 것이다.

하지만 본교 서태양(관광경영학)교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구촌의 순수 문화축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2002년 엑스포를 다시 찾겠다는 관람객은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제 석달간의 문화축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특별연장운영을 계획하고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입시 박람회' △캐퍼스 뮤지컬 '오르페의 사랑'을 준비했다. 어쩌면 이 시간은 마지막 남은 열정으로 보름동안 엑스포 현장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성공이나, 실패냐'를 따지는 경직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단지 돈을 벌어들이는 문화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엑스포는 끝나지 않았다.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2년마다 좀 더 새롭고 알찬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지하철역 내, 기초질서가 생활화된 시민들의 모습.

취업길라잡이

지방 대학생 좁은 '취업문'

2000년 하반기 각 기업들의 사원 채용이 상반기에 비해 줄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에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실업이 심화될 예정이다. 더구나 기업들이 지방대 학생을 기피하고 있어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9월 중앙대학교 취업대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지방대 출신 학생과 서울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과의 능력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대 학생의 64.5%가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방대 학생들이 취업에 불리한 이유는 기업체 측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에서 지방대 학생들을 기피하는 원인은 △정보수집력(35.6%) △국제화 감각(32.6%) △외국어 능력(30.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수집력은 인터넷의 활성화로 서울, 지방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화 감각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물을 많이 접하거나 독서 등 간접체험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어 능력 또한 주말에 외국인이 많이 나오는 장소로 나가 대화를 시도하거나 토익시험을 치는 등 적극성을 보인다면 수도권 지역 학생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 비해 지방이라는, 지역에서 오는 선입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접해야 하며 외국어 능력을 기르는 등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

책소개

정글에선 가끔 하이어나가 된다.



씨네 21 조선의 편집장이 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에세이.

그녀는 여기자로, 여자 편집장으로 살아온 사회를 정글이라고 표현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론 하이어나가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5년간 씨네 21 편집장을 맡으면서 겪었던 영화관 이야기를 비롯, 개인의 사적인 경험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조선희 지음/한겨레 출판부/정가 7천5백원.

수행의 본질과 화두



20세기 물질문명을 뒤로하고 정신문명의 21세기를 꿈꾸는 명상집.

다양한 수행법들의 실체를 드러내어 수행의 본질과 목적을 일깨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를 능동적으로 각성시켰던 옛 스승들의 가르침 형식을 따라 화두를 바탕으로 보다 쉽게 깨달음을 얻게 한다.

백경 스님 지음/불광출판부/정가 9천원.

이윤기의 그리스·로마 신화

신화를 이해하는 12가지 열쇠를 부제로 내건 신화 안내서.



잘 알려진 12가지 신화 이야기를 좀 더 쉽고 재밌게 다시 썼다.

그리스인들이 바라본 세계관과 신화 속의 신들이 지닌 의미를 풀이하고 여러 가지 버전을 소개하고 있다. 신화의 근원에 대한 해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찍어 선별한 도판 등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화에 대한 저자의 풍부한 해설이 돋보이는 책.

이윤기 지음/웅진닷컴/정가 1만 2천원.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불교합창단 정기 공연



서울캠 불교합창단이 서른 한번째 정기 공연을 갖는다.

중창 위주의 이번 공연은 '마하반야바라밀다'를 비롯한 불교 노래와 함께 '마법의 성', '꽃 피는 아가씨', 그리고 여러 팝송들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5시, 본관 중강당에서. 문의 011-801-1910 (김지연)

창작시극

서울캠 동국문화회가 창작시극 '주변을 서성거리다'를 공연한다.



이 공연은 지난 98년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수배된 전 전교조 전담부 '오종렬 의장'과 두 아들이 겪는 이야기를 극으로 엮었다.

동국문화회 회원들이 극본은 물론, 연기·연출까지 모두 담당하여 무대를 꾸민다. 오는 18일,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011-9734-2116 (송영호)

뮤트피아 정기공연



경주캠 음악동아리 '뮤트피아'에서 11번째 정기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Falling in to you'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back at one'을 시작으로 총 19곡의 잔잔한 멜로디를 선보인다.

R&B와 아가펠라의 절묘한 만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5일 오후 6시, 소강당 1에서. 문의 (054)770-2786

작은 영화제



서울캠 연극영상학부는 제2회 도시락축제 일환으로 '작은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 영화제에서는 총 12작품이 선보이며 하루 2회에 걸쳐 출품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연극영상학부 학생들이 영화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개인의 솜씨를 뽐내는 물론, 하나로 뭉친 연극영상학부의 단결력도 보여준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3시, 6시. 문화관 지하 2층에서. 문의 019-216-0687 (최재용)

국악과 발표회



경주캠 국악과가 첫 번째 '거문고·해금 발표회'를 가진다.

첫무대는 거문고와 해금 2중주로 장식되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총 6마당은 거문고 살풀이로 끝을 맺는다. 거문고의 저음과 해금의 고음이 조화로운 선율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오는 16일 오후 6시, 소강당 2에서. 문의 (054)770-2509

메리디언스 정기공연



경주캠 한의대 동아리 '메리디언스'가 열 아홉번째 정기 공연을 연다.

기와 월이 흐르는 통로라는 뜻을 가진 Meridians는 락을 사랑 하는 한의학도들의 모임으로, 이번 공연에는 여성보컬의 색다른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하드코어와 헤비메탈이 어우러지는 열광적인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오는 14일 오후 6시, 소강당 1에서.

문의 011-9850-3588

학교 밖에서

넌센스 공연



극단 에밀레가 백열다섯번째 정기공연으로 뮤지컬 '넌센스'를 선보인다.

이번공연은 'nonsense'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섯명의 주인공이 춤과 노래를 통해 웃음을 자아낸다. 현대인들의 낮은 책임의식과 권위관심을 꾸짖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오후 7시. 경주 예술극장에서.

에매쳐·가격·대원서점/파리베게트/영화마을, 학생 4천원/일반 8천원. 문의 (054)743-3855

에메이징 개그콘서트



새로운 소재와 파격적인 형식으로 장안에 화제를 뿌린 '개그 콘서트'가 네 번째 이야기를 펼친다.

'학교'라는 갠한 공간을 컨셉으로 한 이번 공연은 '공동경비구역 JSA'를 패러디 하는 등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웃음을 보여 줄 계획이다. 지난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7시 30분, 주말·공휴일 4시 30분, 7시 30분(월요일). 인텔아트홀 1관에서. 문의 402-2637-8



“겨울의 전설”... 원효관 중정에 만발한 가을단풍은 벌써부터 겨울을 예고하고... 오손도손 이야기 꽃을 피우는 학생들 뒤로 늦가을이 저물어간다. 촬영=이민영 동문

동아리 탐방

'동목회' 서예를 통한 참인간 양성

글자체에 대한 도전정신·자기수양의 방법

그윽한 묵향에 젖어 한 획 한 획을 조심스레 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가지각색의 필체로 온갖 정성을 들여 글씨를 써 나가는 동목회 회원들이 바로 이들이다.

경주캠 서예동아리 '동목회'는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서예를 벗삼아 인격을 도야하며 친목을 다질 목적으로 1979년에 출발했다.

현재 활동인원은 30~40여명 정도이고 1학년 때부터 한글, 안채, 구체, 예서, 육조 5개 중 마음에 드는 글자체를 선택해 연습하게 된다. 자신의 글자체에 숙달된 사람들은 다른 서체에 도전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정신을 배운다고 한다. 동목회 회원들은 글씨에 정성을 가다듬기 위해서 30~40분 가량 직접 먹을 갈며 흐트러짐 없는 고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또 점 하나에도 세심한 신경을 쏟아야 하는 등 상당한 인내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우울할 때 붓을 잡고 글을 쓰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지고 답답했던 마음도 금세 잊혀진다고 한다.

21년의 전통을 지닌 동아리인 만큼 선·후배간의 정과 사랑 또한 남다르다. 1년에 한번씩 창단기념일이 되면 모든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조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동목회는 매년 교내 문무관에서 '고교생 서예실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영남지구로 한정했던 대회를 올해부터는 전국 고교생 서예실기대회로 개명하며 참가 범위를 넓혔다. 이를 위해 장거리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포항, 울산 등 인근 지역 학교를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목회 회장(안정공2) 회장은 "매년 5백명이 넘는 대회 참석자들이 올해는 반 정도로 줄어드는 등 서예에 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멋있는 모습으로 붓끝을 쓰는 이들이 있기에 옛 선현들의 필체가 계속 이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가지 일에 몰두하는 인간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듯 글자마다 정성을 들여 획을 긋는 동목회 회원들의 모습에서 고귀한 인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이소라 기자 bbang@mail.dongguk.ac.kr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Meal type and Price. Includes items like 참치찌개, 미트볼, 갈비탕, 콩나물, 소고기, 제육, 교자, 오징어, 햄숙이, 차킨샐러드.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Meal type and Price. Includes items like 쇠고기, 삼선, 육개장, 고구마, 참치, 잔치, 닭곰탕, 오징어, 떡만두, 제육김치.

Advertisement for '동국연제' (Dongguk Yearly Festival)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event details for Nov 14-16.

Advertisement for '타이핑 아르바이트합니다' (Typing part-time job) with contact info and details.

Advertisement for '침밀밀' (Chim-mil-mil) movie screening with date and time.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Meal type and Price. Includes items like 호떡, 참치, 김치, 콩나물, 김치, 배추, 오징어, 콩비지, 햄채, 된장, 하이리, 시금치, 쇠고기.

총동창회 소식

행사: ROTC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회장: 노환영)
일시: 11월 22일(수)
장소: 국방회관(삼각지 소재:748-0707)
시간: 18:30